

한국독어독문학의 문화연구 - 그 경향과 전개

탁선미 (한양대)

1. 서론

본 논문은 한국독어독문학에서 소위 ‘문화연구’적 경향이 언제부터, 왜,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태동하고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을 정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이라는 제도 내에서 인문학(Humanities 또는 Liberal Arts)의 일부로서 존재해온 한국독어독문학의 지난 역사에서 소위 문화연구로 불리는 연구경향은 가장 최근의 현상이다. 국내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이 새로운 연구경향은 무엇보다도 전공별 정원 배당 및 신입생 모집의 포기를 요구하는 1995년 5월 학부제 시행령이 촉발한 ‘대학 인문학’의 제도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동시에 문화연구는 1990년대 세계 인문사회과학의 전반적인 화두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냉전구도의 와해 및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 질서의 심화 과정에서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의 형태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학문 내외부의 요구와 연관이 있었다.¹ 그러나 문화학 Kulturwissenschaften의 학문적 정체성 및 인식목표, 그 연구대상 및 방법론은 여전히 유동적인 면이 있는데, 문화학이 문화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삼는 하나의 단일한 학문방법론적 체계인지, 아니면 경험적 현상의 영역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 복수의 학문, 즉 시각문화연구, 대중문화연구, 젠더문화연구, 기억문화연구, 이산문화연구 등의 총

합인지, 아니면 독립된 학문이라기보다는 전통 인문사회과학들에게 그 연구대상의 기호학적이고 매체적인 형식 및 사회적 의사소통의 맥락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일종의 메타 방법론인지, 또한 인문학을 문화학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은 문학학, 역사학, 철학이라는 기존의 개별학문 고유의 전문적 연구방법과 대상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과 대상을 추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의 전통적 인식목표와 방법론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는지, 이 모든 물음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독어독문학 문화연구의 전개양상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몇 가지 문화학 개념과 이해를 전제해야 할 것이다.

한국독어독문학에서 문화연구의 단초를 마련해 준 것이 역설적이게도 1990년대 중반의 독문학의 위기이지만 이 시기는 동시에 한국독어독문학의 도약의 시기이기도 했다. 1993-1996년 사이 독어독문학의 학술적 공론장은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루면서 대중적 규모에 도달하였고,² 동시에 통일 및 유럽통합 등으로 인한 독일 사회의 대대적 문화변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지적 열기가 축적되고 있었다. ‘독문학위기론’은 이러한 지적 잠재력이 새로운 연구영역과 방법론을 찾아 폭발하게 만드는 촉매제로 작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초기의 문화학 논의는 인문학 대 실용어학, 문화학 대 지역학으로 대립 구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방법론적 논의들이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으며 문화학적 발상을 실현한 구체적인 연구성과물들도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최근에 이르러 한국독어독문학의 문화학적 연구는 몇 개의 유형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내용을 크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학적 문학연구 Literaturwissenschaft als Kulturwissenschaft이다. 이 연구유형에서는 문학 텍스트와 문학사가 여전히 연구의 중심에 있지만 텍스트는 그것이 속한 사회적 현실의 여러 담론들과의 상호교류 속에서 파악되고 이해된다. 문학 텍스트를 고립된 미학적 형상물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호체계들과 연합하고 동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학을 사회의 반영으로 보는 유품론적 비평 관점이나 작품을 텍스트로 설정하고 사회를

1 독일의 저명한 인문학자이자 학술정책가인 프뤼발트 Wolfgang Frühwald, 코젤렉 Reinhart Koselleck, 미텔스트라스 Jürgen Mittelstraß 등은 『오늘의 인문학 Geisteswissenschaften heute』(1991)에서 전통적인 인문학을 ‘문화연구’로 개혁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것은 이후 독일 연방정부의 학술정책과 대학정책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2 이 시기에는 전국규모의 종합적 독어독문학 연구를 지향하는 한국독어독문학회의 「독일어문학」(1993), 한국독일언어문학회의 「독일언어문학」(1993)을 비롯해 한국브레히트학회의 「브레히트와 현대연극」(1995), 한국독일어교육학회 「외국어로서의 독일어」(1996) 등이 창간된다.

컨텍스트로 보는 문학사회학의 관점과도 구분되는 것으로, 문학은 다른 담론들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담론 및 규범의 기호체계의 생산, 순환, 소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영국 버밍햄 문화연구소의 문화연구, 신역사주의 New Historicism, 문화시학 Kulturpoetik, 체계이론 등은 모두 이러한 문학 비평을 촉진하였으며, 인문대학 Philosophische Fakultät의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의 독어독문학이 추구하는 문화연구는 이러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학적 문화연구는 다시 두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작품이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과거에 속한 경우, 역사인류학적 관심이 문화학적 문화연구의 중심에 오게 된다. 그에 반해 현대사에 속하는 경우, 문화비평의 성격이 보다 강조된다. 즉, 문학텍스트가 현대 문화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해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고 평가하게 된다. 지난 이십여 년 간 문화학적 교육개혁을 거치면서 독일 독문학의 증세문학학은 넓은 의미의 역사인류학으로 변화해가고 있다.³ 반면 이차세계대전 이후의 현대 문학 연구에서는 버밍햄 연구소의 문화 개념에 준해서 현대문화비평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실제로 독일의 현대 독어독문학 연구는 이차대전과 나치즘의 과거를 둘러싼 기억논쟁, 통일과 독일문제, 독일정체성을 둘러싼 논쟁, 68운동과 서독사회의 재평가 논쟁, 젠더문제와 페미니즘, 오리엔탈리즘과 다문화 논의 등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즉 현재 독일의 독어독문학은 그 어느 때보다 현대문학을 현실문화의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의사소통의 과정에 재배치하고 그 기호로서의 가치 및 실천적, 수행적 performativ 맥락을 파악하려는 인식론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셋째, 문화지역학적 문화연구 Studies of Culture Area이다. 이것은 문학 텍스트와 문학사를 벗어나서 넓은 의미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유형이다. 이것은 다시 인문학적 문화지역학과 사회과학적 문화지역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독일어권과 유럽지역의 영화, 예술사, 사상, 문화제도와 규범, 사회적 정체성과 가치, 역사적 담론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다. 전통적으로 비교문학사의 관점을 견지해왔던 미국 독어독문학의 경우 독일의 비합리주의 사상 및 예술의 전

통이나 정신분석학적 문화 이해, 낭만주의, 유대인문제, 나치즘 등의 주제를 다루어 왔는데, 이것은 일종의 인문학적 문화지역연구라고 할 수 있다. 영화와 회화, 그리고 대중 매체의 재현물을 대상으로 독일어권의 다양한 집단 정체성 및 정치, 사회, 문화 의식을 분석하는 시도 역시 이러한 인문학적 문화지역연구라고 할 수 있다. 독어독문학이 독일어권의 고급문화와 창의적 예술을 중심에 둘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집단적 삶의 규범과 정체성, 행동방식으로서 문화를 중심에 둘 것이냐에 따라 인문학적 문화지역학의 범위는 매우 넓게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사회과학적 문화지역학은 지역학의 본격적 영역들을 독일어권과 유럽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즉 문화지리, 정치경제, 사회계급과 구성, 법과 국제관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유형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간의 복합적인 관점을 특징으로 하는 이 연구유형은 국내 대학에서 지역학 또는 국제학을 표방하는 외국학 학과들에서 추구하고 있다. 대학의 전공학문 차원에서 보자면 이러한 지식형태는 넓은 의미의 독일어권 문화학의 토대연구가 될 수도 있고, 지역관련 통상 및 국제정치에 중점을 두는 전공과정의 일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다섯째, 문화학의 학문이론 및 세부 방법론을 둘러싼 논의는 1990년대뿐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초기 논의가 문화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학문론적인 것이었다면 논의가 진행될수록 문화연구의 인식 방법론들에 대한 심화된 연구로 이행되는 추세이다. 지난 십오 년의 문화학적 발전에서 이론을 둘러싼 논의는 하나의 뚜렷한 전통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화이론적 논의들이 진행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지난 십오 년 간 진행된 한국독어독문학의 문화학적 전환이 어떤 학문이론적, 방법론적 논의를 근거로 하고 있었는지 (II절),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문화연구 유형별 구체적 연구 성과는 무엇인지 (III, IV절) 자세히 정리하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II. '문화학' 방법론 논의

제도 독문학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문화학적 개혁논의의 중심에는 고등교육 기관의 전공학문으로서 독어독문학에 대한 자발적 교육수요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1990년대의 문화학적 개혁논의에서는 실용적 언어교육인 '외국어

3 이에 대해 다음을 참조하라: Strohschneider, Peter (2006), Über mediävistische Literatur- und Kulturwissenschaft, in: Germanistentreffen. Tagungsbeiträge. Deutschland-Korea, DAAD Bonn 2006, S.71-82.

로서의 독일어 DaF' 및 바로 이 DaF에서 선호되었던 '지역학 Landeskunde'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외국어교육을 둘러싼 독일학계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소위 1970년대의 실용적 '의사소통모델'이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상호문화모델'로 통합, 수정되는데, 비언어적인 지역학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상호문화 모델이 1990년대 한국독일어교육학계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이 상호문화모델에서는 지역학적 지식을 낯선 문화의 구성원들과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지적 능력으로 규정하는데,⁴ 그것은 낯선 문화의 일상 생활에 대한 정보나 정치경제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지식에서부터 인간관계와 집단 내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습, 규범, 정서, 가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상호문화적 독일어 교수법 이론가들은 지역학 지식이 어떤 '배경지식 Kontextwissen' 이어서 의사소통행위로부터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사소통 행위 자체에 필수적으로 내재된 요소라고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학 지식은 '독자적 explizit'이고 체계적 지식으로 별도로 교수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어실습에 '통합되고 integrative', '내포된 implizit' 지식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⁵ 실제 의사소통을 위한 이런 지역학 지식은 정치경제적 구조와 시사적 이슈들보다 일상생활과 문화의 행위영역별 주제에 대한 이해로 낙착되는데, 인류학적 보편적 문화 요소들 및 소위 '문화파찰 요소 Kulturreibungen' 들이 중심에 온다. 1980년 유럽의회는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의 주제 시안 'Kontaktsschwelle Deutsch als Fremdsprache' 목록을 제시하는데, 이 목록은 1.신상설명, 개인 정보, 2.주거, 3.(사회적)환경, 4.여행과 교통, 5.식생활, 6.물건사기와 일상용품, 7.공공기관과 사설기관, 8.건강과 위생, 9.인지, 10.일과 직업, 11.교육, 12.외국어, 13.여가와 유희, 14.개인적 친분과 인간관계, 15.시사적 이슈: 일반적 관심거리라는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이후 DaF가 추구하는 지역학 지식의 근간이 되는데, 1999년 소위 '에비시디 명제 ABCD-Thesen' 이후로는 '다문화' 감수성과 능력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⁶

1990년대 문화학적 방향전환을 위한 논의가 그러나 DaF식의 언어실습 통합적이고 일상문화 중심의 지역학으로만 귀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기존 독어독문학자 다수는 학문적 문제의식의 내용과 정도는 달라도 독어독문학을 전문적인 인문학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문화학적 보완을 하되 인문학적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고영석 교수는 1990년대 문화학 모색기의 이론 논의를 DaF로의 완전 개혁 대 보완진영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⁷ 이 시기 문화학과 지역학을 둘러싼 논의에서 소위 '실용적' 지역학에 대한 경계와 거부는 특정 세대만의 입장은 아니었다. 교육과 연구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신진 및 중진 독문학 연구자 이십여 명에 대해 필자가 2002년에 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개혁주도층의 젊은 학자 상당수가 개혁은 원하지만 인문학으로서의 학문적 정체성의 유지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⁸ 매우긍정, 긍정, 중립, 부정, 매우부정을 각각 1에서 5로 표시하였을 때, 독어독문학을 "인문학 humanwissenschaftliche Disziplin"으로 이해한다"에는 1.6, "독일어권문화지역학 Studium des deutschsprachigen Kulturraums"으로 이해한다"에는 2.6, "직업 지향적 실용학문 berufsorientiertes pragmatisches Studium"으로 이해한다"에는 3.4로 반응하였다. 동시에 실용적 언어교육의 강화에는 1.7로, '독일문화지역 및 문화학적 주제' 교과목의 강화에는 1.8로 반응하였으나, 전통적인 문학수업의 축소에는 2.5로 반응하였다. 종합하자면 1990년대 후반의 문화학을 둘러싼 논의에 참여하였던 학자들은 적어도 독문학 전공자일 경우 문학교육의 틀을 유지하고 인문학 전통을 지키면서, 문화학 내지 지역학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문학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문화학과 지역학을 보완한다'는 원칙적 입장이 방법론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불확실 하였다.⁹ 독어독문학 문화연구의 학문적 기준 및 교육방법을 둘러싼 1990년대

김한란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허수권, 김옥선, 민춘기, 김미연 등이 상호문화적 프로젝트 중심의 지역학 이론을 대변한다.

7 고영석 (2001), 449 이하.

8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필자의 다음 줄고를 참조: Sun-Mi Tak (2002), Quo vadis? - die koreanische Germanistik, in: Neue Beiträge zur Germanistik, Bd.1, hgg.v. Y. Takahashi, München, 57-66.

9 "기존의 문학개념을 확대해서 독일의 역사와 사상을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 (반성완 1996, 개인용 출처: 고영석 2001, 450), "현재의 순수학문 지향적인 독어독문학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창우 1998, 338) 지역학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 "인문학적 학제적 연구를 하는 문화학 중심의 독일학" (최윤영 1999, 154) 이어야 한다는

4 이 시기 DaF 분야에서 지역학 논의에서 자주 인용된 독일 연구자들은 H.W. Lofert (1984), H.L. Bauer (Hrsg.) (1984), A. Ramin (1989), D. Penning (1995), G. Neuner (1996) 등이다.

5 이에 대해서는 김한란 (1998, 178 이하)을 참조할 것.

6 DaF의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이끈 연구자들로는 이원양 외에, 이광숙, 양도원, 김순임,

중반과 후반의 논의에서 DaF의 틀을 벗어나서 좀 더 포괄적인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의 “독어독문학과 독일학 연구” 및 결과 발표회였다.¹⁰ 이 공동연구에서는 이후 2000년대의 문화연구에도 지향점을 주는 토론들이 있었는데, 본격적 지역연구는 ‘언어, 역사학, 지리학, 문화인류학, 정치사회구조, 국제관계에 대한 학제 간 지식을 요구하며, 독일현대사의 중요한 문제들, 즉, 통일연구, 동방정책, 지방자치, 나치즘, 공산주의문제, 통합 유럽과의 관계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정상수), 사회학적 방법론에 토대를 두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현황 및 변동을 분석하는 브레멘 대학의 「문화학적 독일학 연구소 Institut für kulturwissenschaftliche Deutschlandstudien」에 대한 소개 (김누리)가 있었다. 또한 독일 집단심성 및 문화사, 독일 시와 가곡, 포괄적 유럽문화학적 교양교과의 수업사례들을 소개하고 (홍선균, 배정희, 전영애), 독일학의 핵심연구 및 교육 주제로 독일의 축제, 극우주의 및 나치즘, 환경 문제를 논하였다. (최윤영 외, 김명찬 외, 오순희 외)

문화연구와 지역학에 대한 1990년대의 방법론적 논의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국제학술대회 및 초청강연에 초빙된 외국인 학자들의 역할이다. 이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문화학적 내지 지역학적 독어독문학으로의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노이너 G. Neuner는 일상문화와 규범, 상호문화적 의식, 문화비교, 현대사 지식, 사회구조와 제도 등을 포함하는 지역학 교과가 필요하며, 독문학교과도 현대문학 중심으로, 또 아동문학과 대중문학을 포함시키고, 문학 외의 매체로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Neuner 1996) 1997년 8월에 “다매체 시대의 문학

입장, “독일어권 및 유럽사회에 대한 입문정도의 개괄적 지식”들을 추구하면서 “문학을 문화적 상징체계와 문화적 담론들의 일부로” 연구해야 (탁선미 2000, 473) 한다는 입장, “문학의 개념을 ‘순수문학 schöne Literatur’에서 모든 종류의 텍스트로 확대”하고 “순수문학 작품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지역학적/문화학적 관점을 도입”해야 (고영석 2001, 454) 한다는 입장, “정치적·경제적 ‘상호협력’을 표방”하는 국제지역학 대학의 “독일 지역학과는 과감히(한) 차별화”되는 “독일어권 문화학”을 지지하는 입장 (안삼환 2001, 454) 도 있었다. 하지만 독일학 및 학제 간 영역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교육적 실험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독일어권 지역학과 문화연구를 “하나의 독립된 연구영역으로 평가”할 “기준은 정립되지 않은 것” (손은주 2000, 463) 같다는 회의적 판단, 더 나아가 문화연구를 통한 독어독문학의 보완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실 차원에서 “학과의 정체성 문제와 후학들의 양성문제가 여전히 남게 될” 것이라는 (이기석 2004, 310) 우려는 계속되었다.

10 이 공동연구 발표는 연구소의 학술지인 「독일학연구」 제 7집 (1998)에 보고되었다.

Literatur im Multimedialen Zeitalter”이라는 제하에 개최된 서울 아시아 독문학자 대회에서 쾰른대학의 빌헬름 포스캄프 Volkamp는 「문학학과 문화학 Literaturwissenschaft und Kulturwissenschaft」라는 주제발표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서구와 독일어권 인문학의 ‘문화학적 전환’이 문학학에 주는 구체적 의미와 새로운 인식목표를 설명하였다. 그는 문화학적 전환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화두, 즉 전통 인문학, 또는 정신과학 Geisteswissenschaft과 문화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문화학은 전통 인문학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베를린 훔볼트 대학 독문학자이자 문화학자인 하르무트 뵘메 Harmut Böhme를 빌어 우선 논한다. 전통의 인문학이 문화의 보편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문화학은 문화를 다양한 텍스트의 몽타주로 보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추구한다는 것, 또 개인과 집단의 행동에서 다양한 상징체계들을 읽어내는 문화학이 문화인류학적 지식으로 수렴된다면 문화학은 인간의 정신과 심성, 규범과 행동에 대한 학문인 전통 인문학을 충분히 대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체제의 작동방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포스캄프는 ‘문화학적 전환’의 윤리적 정당성을 옹호한다. 그는 여기에 더해 문화학적 문학학의 세 가지 새로운 연구영역을 언급하는데, 첫째 문학 장르를 “문학·사회적 제도 literatur-soziale Institution”로 보고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독자의 기대지평과 개별 문학 작품 간”의 도전과 부응, 그리고 “그에 잠재된 인지적 정서적 윤리적 심성구조”를 연구할 것, 둘째, 알레이 다 아스만의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학을 경험을 담는 문화적 기억일 뿐 아니라, 매체의 형식들을 통해 자기성찰적으로 의사소통적 기억을 수행하는 기구로 볼 것, 셋째, 문화를 상징체계로 규정할 경우 각각의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어떠한 감각 및 인지구조의 변형이 동반되는지, 문학은 다양한 매체들과의 공존과 결합에서 어떠한 위치와 기능을 차지하는지를 연구할 것을 역설한다. 콘스탄츠대학 요하임 패히 Jochaim Paech 교수의 주제발표 「매체 속의 문학 Literatur in den Medien」은 포스캄프가 제기한 세 번째 문화연구적 과제, 즉 매체와 문학의 상호관계 연구에 대해 하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시도처럼 보이는데, 패히는 ‘예술로서의 문학의 자율성 die Autonomie der (Literatur als) Kunst’은 위기이지만 ‘문학적인 것 das Literarische’은 오히려 다양한 매체들을 넘나들면서 변형, 재생산, 확장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작품 Werk, 텍스트 Text, 매체 Medium의 개념을 구분하면서 텍스트와 매체개념에서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코드/텍스트 체계 및 매체 사이의 이동과 변형이 자명한 것이며 전제가 된다고 말한다. 텍스트 상호 간의 연계와 이동 과정 및 그에 동반되는 미적, 형식적, 정서적, 지적 인식 형식의 변화에 주목하는 문화연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체의 물질성, 즉 매체가 내용을 매개하는 형식과 매체 자체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패히의 주장이다. 이러한 그의 매체학적 문학연구란 자연스럽게 문화를 구성하는 담론과 코드, 매체 관계와 변화의 총체적 과정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연구의 학문론 및 방법론을 둘러싼 1990년대의 이러한 논의들은 남겨진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는 몇 가지 점을 분명하게 해주었다. 우선 문화지역연구가 단일한 학문모델이라기 보다는 복합학적인 학문 모델이라는 것, 복합학적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모습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독어문학의 인문학적 정체성 및 그 지식형태는 발전론적 문학과 미학적 텍스트비평에 제한된 전통적 독어독문학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매체학적 관점의 주제를 가진 연구가 1993년부터 1998년까지는 불과 한두 편이던 것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이삼십 여 편으로, 2005-2008년 사이에는 매해 오십여 편으로 폭증한 것은 이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패히의 의미에서 예술로서의 문학의 독자적 경계가 무너지고 그 대신 다양한 매체 속의 ‘문학적인 것’으로 독어독문학의 연구대상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문화연구적 방법론의 모색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한국독어독문학회가 개최한 2003년의 제 11차 국제설악심포지움의 주제는 “독어독문학에의 도전과 잠재력으로서의 문화학 *Kulturwissenschaft als Herausforderung und Potential der Germanistik*”이었다.¹² 초청연사였던 뒤셀도르프대학의 마투스sek Peter Matussek 교수는 다양한 문화학적 방법론의 단초가 독문학 및 독문학 연구사 내에 부분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역설한다. (Matussek 2004a) 그는 수용미학이 발전시켰던 텍스트의 “빈자리 *Leerstellen*” 개념과 ‘수행적 *performativ*’ 기억 이론을 결부시키면서 문헌학적 읽기 능력이 문학 텍스트 뿐 아니라 회화와 영상, 그리고 음향 텍스트의 수용 미학적이며, 문화적 기능을 분

석하고 설명하는 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Matussek 2004b) 일본 측 발표자인 홋카이도 대학의 요시다 Tetsuya Yoshida 교수는 특히 통일 이후에 일본의 독어독문학계에도 예술로서의 독문학연구가 아니라 “독일에 대한 통합적이고 사회사적 문화연구 *eine synthetische sozialgeschichtliche Kulturforschung von Deutschland*” (Yoshida 2004, 66)가 요구된다고 전제하면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인 독일을 그 전체에서 파악 *Deutschland als fremdkulturelle Gesellschaft als Ganzes auffassen*”하려는 경향이 득세하였다고 전한다. 그 외에도 1990년대 후반 독일 독문학계에서 벌어진 문화학적 개혁파와 소위 전통문헌학주의자들 간의 논쟁의 소개 (Köhler), 헤르더, 짐멜, 프로이트의 문화철학적 사상의 소개 (김대권, 노희직, 광정연), 그리고 다양한 비교 문화적이고 매체학적인 사례연구 발표들이 있었다. 문화연구의 학문이론적 방법론적 이해를 둘러싼 이러한 지난 십오년 간의 논의는 2005년 10월 독일학술교류처 DAAD와 한국독어독문학회의 한독 독문학자 학술대회 “한국의 독어독문학: 전망과 도전, 그리고 개혁시도들 *Germanistik in Korea: Perspektiven, Herausforderungen und Reformansätze*”,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6년 8월 서울에서 다시 열린 아시아독문학자대회 “아시아의 문화학과 독문학 *Kulturwissenschaftliche Germanistik in Asien*”으로 그 정점에 이른다. 이 학술대회의 공식 주제설명에 따르면 “문화학적 확장”은 독문학의 연구 “대상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론적 방법적 틀”에 해당되기도 한다.¹³ 이러한 문화학적 확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배경으로는 첫째,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국제 독어독문학의 문화학적 전환, 둘째, 아시아의 독어독문학을 독일식 모델에서 미국의 “독일학 *German Studies*”과 같은 외국학으로서의 독어독문학 모델로의 전환할 필요, 셋째 아시아 대학독문학의 전통적 4개 연구 영역인 언어교육, 독어학, 문학학, 지역학의 틀을 염두에 둔 아시아적인 문화학의 가능성과 특징의 발전에 대한 고민을 꼽았다. 현재까지도 한국독어독문학계에서는 문화학의 학문론 및 방법론적 논의들이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 DaF 분야에서는 이문화 또는 다문화능력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와 교수법 모델들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고, 매체학적 이론들은 더욱 확장, 세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11 송희영(2009, 286), 변혁기 이후 독어독문학 연구의 확장으로서의 매체사, 출처;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 32집, 285-305.

12 이 학술대회의 발표논문들은 「독일문학」 90집에 수록되었다.

13 Themenbeschreibung im Programmheft der Asiatischen Germanistentagung *Kulturwissenschaftliche Germanistik in Asien*, 서울 2006, S.12-15.

젠더이론과 기억이론, 정신분석학적 이론들도 여전히 문화연구의 방법론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며, 후기구조주의적 기호분석과 체계이론은 문화연구에서 일종의 메타 방법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III. 문화학적 문학연구

1. 현대문화비평 유형

문화학적 문학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현대문화비평 유형의 연구이다. 초기 이론논의가 무르익으면서 문화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와 질적인 발전을 보이는데 통시적으로 보자면 2003-4년이 하나의 기점이다. 12개의 학술전문지로 구성된 현 독어독문학의 학술공론장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1993-1996년 시기 다음 해인 1997년, 한국독어독문학계에서는 총 19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¹⁴ 이로부터 7년 후인 2004년에는 독어독문학 관련 총 12개 학술지에 432편의 논문이 발표되는데, 이 시기는 양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도 하나의 도약기였다.¹⁵ 1990년대 초 거의 미미했던 문화학적 학술역량은 2003-4년 이 개년 기간 중에 전국규모 종합 학술지인 「독일문학」 「독일어문학」 「독일언어문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446편의 논문 중 145편을 차지하여 32.5%의 규모로 확장된다. 총 446편 중 어학 124편을 제외할 경우는 전체 322편에 145편으로 그 비중은 45%로 높아진다. 즉, 2003-4년에 이르면 독어학 및 독어교육학을 제외한 한국독문학 학술공론장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은 거의 두 편 중 한편은 문화학적 대상이나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학적 연구물들에서 학문론적, 방법론적 논문들을 제외할 경우 가장 빈번한 유형이 바로 ‘현대문화비평’적 문학연구였는데, 이 연구유형은 언급했듯이 문학 텍스트를 중심에 두되, 그

문화적 담론을 현실사회의 제 담론들의 순환과정에 재배치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현대문화비평적 연구관점이 선호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문학의 사회적 함의에 주목하는 소위 문학사회학적 방법론이 한국독어독문학에서도 1980년대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 독일현대문학의 사회비판적이고 현실참여적인 전통으로 인해 그 문화적 담론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현실문화의 포괄적 맥락으로의 재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 유형의 연구들은 독일통일을 전후한 소위 ‘전환기문학’이나 나치즘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기억을 시도하는 ‘과거반성’의 문학, 또 보수적이고 반공주의적 전후 독일사회와 그 집단 정서를 비판하는 ‘시대비판’ 문학, 그리고 1970년대 이후 구동독의 체제비판적 문학,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에 뿌리내린 문학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한국독어독문학의 문화연구적 도약기, 즉 2003-4년의 문화학적 연구의 세부유형 간 비율, 그리고 선호되는 개별담론들을 일차 정리해보겠다.¹⁶ 12개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국규모 종합 학술지인 「독일문학」 「독일어문학」 「독일언어문학」 3개 학술지로 그 대상을 제한한다.

<표 1> 2003-2004년 3개 학술지 문화연구 세부유형 비율 및 담론주제
(가-독일문학, 나-독일어문학, 다-독일언어문학)

2003-2004 논문집	A 문화학적 문학연구			B 문화지역학		논문 편수
	역사 인류학적	현대문화 비평적	문화 이론	인문	사회	
가 85집	2 유대, 중세성배	5 미국, 동독, 젠더, 생태, 매체	-	4 도시, 민족, 극장, 영화	-	11편
가 86집*	-	-	-	3 농아, 매체, 광고	-	3편
가 87집	2 유대, 민담	1 매체	1	1 속담	-	5편
가 88집	-	1 분단	1	-	-	2편

14 1997년 한국독어독문학의 학술공론장은 각주 2)에서 언급한 4개 학술지 및 한국독어독문학회의 「독일문학」(1959년 창간) 외에, 「독어교육」(1983년 창간), 「괴테연구」(1983년 창간), 「독어학」(1984년 창간), 「뉘히너와 현대문학」(1988년 창간) 을 포함한 9개 학술지로 구성된다. 현재는 「독어학」(1999년 창간), 「헤세연구」(1998년 창간), 「하인리히 뵐」(2001년 창간)을 더하여 총 12개 학술지로 구성되어 있다.

15 2008년 12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총 413 편으로 2004년 대비 약간 감소세이다.

16 <표 1>의 A 항내의 ‘문화이론’ 유형은 문화학에 대한 학문론적 연구 및 문화학적 문학 연구에 토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개별 방법론 연구들을 포함한다.

나 20집	-	2 과거,인종전(유고)	1	3 문학수용, 연극사, 언어정화운동	1 유럽통합	7편
나 21집	2 신화,속담	3 홀로코스트,과거	3	3 종교논쟁,여성, 영화(여성)	-	11편
나 22집	-	2 통일,과거	3	1 매체(잡지)	1 EU	7편
나 23집	-	2 양차대전기, 나치시대	-	2 웃음론,68	1 일상(철도)	5편
다 19집	1 축제	-	-	1 영화비평	-	2편
다 20집	-	2 유대	1	1 영화	1 유럽통합	5편
다 21집	-	-	4	2 통일,번역	-	6편
다 22집	2 교양,경제	-	3	1 호머수용	-	6편
가 89집	1 사랑(18c)	2 생태,나치즘	3	-	-	6편
가 90집*	1 문화론	2 이방,이산	9	5 루소,매체, 영화(이민), 이방,예술사	-	17편
가 91집	1 결혼	2 통일,이민	-	1 망명	-	4편
가 92집	-	-	3	2 지성사,영화	-	5편
나 24집	-	-	2	1 종교풍속	-	3편
나 25집	1 책문화	1 문학수용	1	3 민요,가극, 정신사(보수)	1 통일(언론)	7편
나 26집	1 정치위인신 화 (나폴레옹)	-	-	5 민요,속담, 이방, 영화, 나치즘과거	4 통일(여성, 군사,교회) 여성복지	10편

나 27집	1 여성(18c)	4 양차대전,향토운동, 여성(분단), 과거	-	1 영화	2 통일(사회), 생태운동	8편
다 23집	-	-	2	-	1 환경교육	3편
다 24집	-	1 빈	-	2 독일극장,68	-	3편
다 25집	-	2 유고문제, 여성성(기술)	1	1 풍습(침묵)	-	4편
다 26집	-	1 반유대주의	1	1 축제	2 여성운동, 환경과휴가	5편
합	15편	33편	39편	44편	14편	145
비율	10.3%	22.8%	26.9%	30.3%	9.7%	100%
순위	4위	3위	2위	1위	5위	

* 설악 심포지엄 특집호

<표 1>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 기간에 위 3개 학술지 기준 독어독문학의 문화학적 학술공론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부 유형은 다음 IV.1절에서 다룬 인문학적 문화지역학이다. 현대문화비평적 문학연구유형은 약 23%로 문학 관련 문화이론유형과 더불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종합하자면 2003년 이래 한국독어독문학의 문화연구적 학술공론장은 무엇보다도 이 3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이 보여주고 있는 2003-4년 기간의 문화연구의 발전적 도약은 2008년 현재까지 상승곡선을 그리며 확장되고 있다. 이제 2008년의 연구경향을 정리해보자.

<표 2> 2008년 3개학술지 연구유형 비율 및 문화연구 세부담론

2008년	문학중심 문화연구			문화지역학		전통문학 연구	어학	합
	역사 인류학적	현대문화 비평적	문화 이론	인문	사회			
논문집	2	1	2	2	-	3	1	11편
가 105집	남성, 자연과학	통일	2	추모문, 영화	-	3	1	11편

가 106집*	-	3 여성문, 서 독사, 이민	9* 매체학	1 영화사	-	3	-	16편
가 107집	1 심성사	1 이방주의, 여성성	2	1 문화전이 (번역)	-	6	1	13편
가 108집	-	3 파시즘, 보수혁명, 통일	4	1 통일	-	4	6	18편
나 40집	2 모성, 종교	2 과거, 68운동	1	1 기억 (이민사)	1 생태운동	3	6	16편
나 41집	3 종교, 성장체 성, 신화	-	1	1 일상 (이름)	1 유럽통합	4	4	14편
나 42집	2 종교, 젠더	1 기술문명	3	1 영화사	2 반유대, 문화교역	2	5	16편
나 43집	-	2 통일, 몸	2	3 교육사, 문화교류, 여성문화사	-	4	3	14편
다 39집	3 유대, 재산권, 종교	-	6	2 나치즘, 영화 (극우)	1 지역정책	5	4	21편
다 40집	-	-	3	4 일상, 나치즘, 건축, 사상	1 통일	5	4	17편
다 41집	-	-	4	2 심성사, 예술사	-	1	4	11편
다 42집	-	-	1	2 신화, 문화교류	2 통일, 유럽통합	2	5	12편
유형 합	13	14	38	21	8	42	43	179
대유형 합	65편		29편		42편	43편		

비율 (어학포함)	36.3%	16.2%	23.5%	24%	100%
	52.5%				
비율 (어학제외)	47.8%	21.3%	30.9%	100%	
	69.1%				

<표 2>는 2008년도 3개 학술지의 문화연구논문 외에 전통적 문학연구 및 어학연구의 비율을 보여준다. 2003-4년의 경우 어학은 총 446편 중 124편으로 전체 학술공론장에서 27.8%를 차지하는데 2008년은 24%로 약간의 감소를 보인다. 전통적 문학연구는 2003-4년에 전체 446편 중 177편으로 약 40%를 차지했으나 2008년에는 23.5%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문화학적 연구는 32.5%에서 52.5%로 20%나 증가했는데, 어학을 제외하면, 2003-4년 그 비율은 69.1%에 달한다. 즉 어학을 제외하고 보면 2008년 현재 한국독어독문학의 공론장에서 전통적 문학연구, 즉 작품과 작가, 문학사의 지평 내부에서만 논증을 전개하는 경우는 급격히 줄어들어 문화연구는 전통적 문학연구에 대해 약 7:3 정도의 우세를 보인다. 이것은 어학 분야를 논외로 하면 논문 세편 중 두편 이상이 문화연구적 관점이나 대상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학적 연구경향의 확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연구 내의 세부유형간의 선호도 변화이다. 2008년 문화연구의 세부유형을 분석한 <표 3>을 보자.

<표 3> 2008년 3개학술지 문화연구의 세부유형 비율

상위 유형	문학중심 문화연구			문화지역학		총
	역사인류학적	현대문화비평적	문화이론	인문	사회	
세부 유형	역사인류학적	현대문화비평적	문화이론	인문	사회	총
편 수	13	14	38	21	8	94편
비율	13.8 %	14.9%	40.4%	22.4%	8.5%	100%
순 위	4 위	3 위	1 위	2 위	5 위	

앞의 <표 1>은 2003-4년 시기 3개 학술지의 문화학적 공론장의 세부유형에서 3장 2약 구도를 보여주었다. 즉 인문학적 지역학, 문화이론, 현대문화비평적 문학연구, 이 세 유형은 각각 약 30%, 27%, 23% 정도로 비교적 골고루 강세를 보였으며, 사회과학적 지역학과 역사인류학적 문학연구는 약 10% 선을 오르내렸다. 그에 비해 2008년에는 <표 3>이 보여주듯이, 문화이론이 40% 정도로 뚜렷이 확대되었고, 인문학적 지역학은 22.4%로, 현대문화비평적 문학연구는 15% 정도로

제법 감소를 보인다. 사회과학적 지역학은 8.5%로 약간의 감소를, 역사인류학적 문학연구는 14% 정도로 일정량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8년에는 1최강, 1강, 2중약, 1약의 구도를 보인다. 이러한 변동을 학문 내용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현상이 암시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독어독문학이 추구하는 문화연구의 장기적 인식목표와 방법론이 아직 유동적이며 여전히 변화 중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이 절의 논의대상인 현대문화비평적 문학연구로 돌아와 보자. <표 1>과 <표 2>를 종합해보면, 지난 2003-4년 및 2008년의 현대문화비평적 문학연구에서 가장 많이 주제화 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4> 2003-4년 및 2008년 3개학술지 현대문화비평적 문학연구의 세부담론유형

순위	주제/담론	2003-4년	2008년	합
1	과거극복 (나치즘, 반유대주의, 이차대전, 보수주의)	13	3	16
2	통일, 분단, 동독	4	3	7
3	여성, 젠더, 몸	3	3	6
4	이민, 이주, 이방	3	2	5
5	68운동, 서독, 서구비판	1	2	3
5	유럽(전환기 이후)	3	-	3
7	대중매체	2	-	2
7	생태문제	2	-	2
9	기술, 기계문명	-	1	1
9	문화교류, 문화전이	1	-	1
9	도시	1	-	1
합		33	14	47

<표 4>의 상위 2위에 있는 ‘통일, 분단, (구)동독’문제는 짐작할 수 있듯이 1989년 독일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0년의 통일, 구동독의 정치적 청산문제 및 통합문제, 그리고 전후 분단사에 대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논의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999년 베를린 장벽붕괴 10주년, 2000년 독일통일 10주년을 거치면서 독일 사회 자체가 통일을 둘러싼 제 문제, 즉 구동독주민의 경제 및 사회통합, 구동독과 서독의 역사, 통일이 촉발한 사회변화 등에 보다 심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것이 다시 한국독어독문학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였다.¹⁷ <표 4>에서 특히 2003-4년에 압도적 차이로 1위에 올라선 독일현대문화 연구주제, 즉 독일 나치즘 및 이차대전,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

문제는 독일과 유럽의 변화된 정치문화 구도에서 이차대전 발발 및 종전 기념일들이 도래하고, 동유럽 서구들이 개방되면서, 독일과 유럽의 역사학과 기억문화에 대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독일 문학계와 문학연구에 반영된 것과 연관이 있다.¹⁸ 특히 기억이론이 문화연구의 중요한 한 축으로 부상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독일 여론과 지성계, 예술계와 학계의 이슈로 남을 것으로 본다. 여성성과 젠더, 몸 비평을 근거로 삼는 문학연구는 1960년대 신여성운동 이후 서구 및 국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된 영역이다. 이 분야에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는 개별연구자로는 이병애, 박광자, 오청자, 김미란 등 2, 3세대 학자들 외에 4세대의 장순란, 박희경, 도기숙, 김륜옥, 탁선미, 김영옥, 정미경, 서윤정 등이 있다. 그 외 독일 사회의 강점인 ‘생태’ 문제에 대해서는 김용민, 사순옥, 황선애 등이 있고, 영미권의 자극으로 촉발된 이산과 이주문제에 관해서는 최윤영과 박정희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다른 연구자들도 관심을 보이는 추세이다.

2. 역사인류학적 문학연구

문화학적 문학연구의 또 다른 유형은 ‘역사인류학적’ 문학연구유형이다. 이 연구유형은 주로 현대사 이전 시기에서 유래하는 문학 작품들을 해당 역사적 맥락에서 기능하고 작동했던 특정한 인간적 규범, 가치, 정서, 정체성의 기호화 과정의 부분 텍스트로 읽어내려는 연구방법이다. 근대의 여러 현상, 관습, 정체성, 신념, 정서에 철학적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17 개인 연구자로 보자면, 전영애, 김용민, 박설호, 이덕형, 김누리 등이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통일과 구동독 관련 문학연구에 천착하고 있다.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된 이러한 통일관련 연구의 정점은 2004년 한국독어독문학회의 제 12회 설악심포지엄 「전환과 변화. 독일통일 과정에서 문학과 문화 Wende und Wandel. Deutsche Literatur und Kultur im Prozess der Wiedervereinigung」(독일문학 94집), 그리고 중앙대학 「한독문화연구소」의 2003-5년의 공동연구였다. 중앙대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2006년 『독일통일을 말한다』(김누리 외) 총 3권으로 출판되었다. 그 외에도 이준서의 『‘통일 이후 통일과정’으로서의 독일 통일영화』(2006)를 이 시기의 통일문제 관련 연구 성과로 꼽을 수 있다.

18 홀로코스트기억의 문학에 대한 200년대 초반 시기의 연구로는 류은희가 주목할 만하다. 류은희(2003, 독일어문학 21집), 홀로코스트 문학에서의 기억과 역사; 류은희(2004, 독일어문학 25집), 자선지의 “미시적” 역사기술과 그 문화적 의미 - 1970년대와 1990년대 독일작가의 자서전을 중심으로.

을 택한다. 위의 <표 1>과 <표 2>를 근거로 우선 역사인류학적 문학연구의 구체적 주제와 담론을 개괄해보자.

<표 5> 2003-4년 및 2008년 3개학술지 역사인류학적 문학연구의 세부담론유형

순위	주제/담론	2003-4년	2008년	합
1	여성, 남성, 젠더, 모성, 결혼, 사랑	3	4	7
1	종교, 신화	2	5	7
3	유대인, 반유대주의	2	1	3
4	민담, 속담	2	-	2
4	교양, 책문화	2	-	2
4	경제/ 재산권	1	1	2
7	심성, 감정	-	1	1
7	축제	1	-	1
7	문화론	1	-	1
7	자연과학	-	1	1
7	정치적 위인신화	1	-	1
합		15	13	28

<표 5>에서 보듯이 역사인류학적 독문학연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규범과 정체성을 구성하였던 근대의 역동적인 담론들, 또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인류학적 사유 및 제의와 관련된 것들이다. 성정체성이나 양성 질서의 다양한 심리적 규범화 과정에 참여하는 작품들, 또는 종교적 신화적 사유를 변형, 재생산하는 작품들에 대한 연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도기숙은 『독일문학』 91집(2004, 5-24)의 「19세기 전반기 문학에 나타난 결혼담론 - 구츠코와 슈티프터를 중심으로」에서 “구체제 복고와 혁명이라는 작가들의 상반된 경향에서 두 작가의 결혼관은 어떤 공통점과 대립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19세기 전반의 결혼이데올로기의 상충된 지형도 및 각기 담론에 들어있는 특정 집단의 이해와 결혼의 정치적 사회적, 실존적 의미들을 읽어”(도기숙 2004, 7) 보겠다는 의도를 표명한다. 작품의 내용을 19세기 시민사회의 다양한 결혼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저자는 두 작가가 “기존의 결혼담론들을 수용 내지 거부하면서 새로운 결혼담론의 생산에 기여하는 한편, 동시에 결혼과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을 공고히 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도기숙 2004, 20)한다고 평가한다. 민담과 동화, 신화와 전설은 보다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장르인데, 김정철은 『독일어문학』 41집(2008, 29-54)의 「입문의식동화를 통해 본 남녀차이」에서 반 제법의 ‘통과의례’ 이론에 기대어, 그림의 동화가 실현하는 ‘입문의식’의 내러티브를 분석한다. 그림동화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삼단계 진행, 즉 주인공이 “익숙한 환경으로부터(의) 분리”된 후, 분리와 소외 속에서 “변화를 겪고”, 결국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여 귀환”하는 것은 인간의 인류학적 기본표상을 언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더 나아가 이 사회적 성숙의 통과의례에서 그림의 동화는 “남성에게는 적극성과 외향성, 여성에게는 수동성과 내향성”(김정철 2008, 49이하) 이라는 상이한 내러티브를 제시한다고 결론짓는다. 위의 예들이 사회적, 생물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다양한 규정성과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담론과 규범화의 과정들을 추적하는 것이라면, 특정한 사회체제의 가치들을 규범화하는 과정에 대한 문학적 분석도 발견된다. 위 <표 5>에서 3위에 있는 ‘유대인 및 반유대주의’ 담론은 서구사회의 기독교적인 규범과 민족주의 국가 규범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재생산되고 확장된 것이다. 그 외에도 문학적 담론이 근대 이래로 형성된 경제와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가치관의 형성과정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¹⁹ 낭만주의 문학이해가 해당 시대의 매체의 역사적 변화에 의해 조건 지워졌음을 보여주는 연구,²⁰ 근대정치적 이성의 신화로 자리 잡은 나폴레옹이 역사의 “불안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능성들을 이용하면서 상류사회로 진입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연구²¹ 등 흥미로운 연구사례들이 발견된다. <표 5>의 주제항목들은 문화와 자연 개념의 길항작용, 교양 및 교양소설과 개인주의의 상호성, 또 감성과 이성의 위계질서 등을 암시하는

19 『독일어문학』 제 22집(2003, 189-210)에서 권기철은 『파우스트』를 통해서 본 연금술과 근대경제의 연속성에서 『파우스트』를 “연금술의 언어로써 근대경제과정의 성격을 묘사한 작품으로서” 읽으려는 시도를 한다. 괴테와 동시대인인 아담 스미스가 노동을 가치창조의 원천으로 본 것에 반해, 괴테는 자본주의적 부가가치의 창출과정에 마치 연금술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부의 확대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의 『파우스트』 2부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술적인 창조행위를 대신하는 경제적 창조행위는 “근대인에게 불멸에 대한 전망을 열어”주고, 경제는 종교를 대신하는 “초월적 가치”(권기철 2003, 205) 를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

20 김연신의 「18세기 책문화와 전기낭만주의 문학관」(2004, 독일어문학 25집) 참조.

21 「나폴레옹, 그는 정말 혁명가였을까? - 가정법에 기초한 디터 쿤의 나폴레옹 전기 『N』」(장희권 2004, 독일어문학 26집, 135-158)에서 장희권은 쿤이 이 전기에서 나폴레옹 신화를 ‘우연’을 축으로 하는 역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함으로써 그 신화적 아우라를 해체하는 것을 지적한다.

데, 이것은 문학연구가 문화인류학적 인식을 확장하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점들이다.

IV. 문화지역학

1. 인문학적 문화지역학

한국독어독문학계의 문화연구에서 지역학적 경향은 크게 인문학적 문화지역학과 사회과학적 문화지역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문학적 문화지역학은 서론에서 밝혔듯이 문학 텍스트와 문학사를 벗어나 넓은 의미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유형이다. 독일어권과 유럽 영화, 예술, 사상사, 문화제도와 규범, 사회적 정체성과 가치, 사회문화적 담론들과 그 역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지역과의 문화교류사나 대중문화와 도시문화연구도 인문학적 문화지역학에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독일 및 유럽사회, 그리고 그 문화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또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전지구적 관점 및 자문화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과 같은 물음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철학, 미술사학, 공연예술 등의 경우는 사상적, 미적 체계 자체에 대한 전문적 지식보다 그것이 사회의 집단적 정체성, 규범 및 가치, 집단정서의 생산과 순환과정에 기여하는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III.1 절의 <표 1>과 <표 2>를 근거로 인문학적 문화지역학의 주제와 담론들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표 6> 2003-4년 및 2008년 3개학술지 인문학적 문화지역학연구의 세부담론유형

순위	세부 주제/담론	2003-4년	2008년	합
1	영화사, 이론, 영화비평	8	4	12
2	민속학 (풍속, 민요, 속담, 신화)	5	1	6
3	정신사, 지성사 (종교론, 루소, 교육론, 보수)	4	2	6
3	문화교류와 전이	3	3	6

	(번역, 수용, 교류)			
5	이주, 망명, 이민화 문제	3	1	4
5	심성사 (웃음, 주도, 침묵)	2	2	4
5	매체사, 매체비평	4	-	4
8	예술사	3	1	4
8	역사 1: 나치즘	1	2	3
8	문화제도사 (극장, 언어)	3	-	3
8	역사 2: 근대 (국가론, 사회사)	2	-	2
12	현대사 1 (통일, 문화통일)	1	1	2
12	현대사 2 (68운동)	2	-	2
12	도시, 건축	1	1	2
12	여성사	1	1	2
12	일상정보 (현재 독일)	-	2	2
합		43	21	64

<표 6>을 보면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인문학적 문화지역학연구의 세부 주제들은 총 16개로 현대문화비평적인 문학연구 주제 11개, 역사인류학적 세부주제 11개, 그리고 뒤에서 다룰 사회과학적 세부주제들 9개에 비해서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학 이외의 영역에서 문화적 기호화과정, 그리고 그 다양한 역사를 연구한다는 목표로 인해 인문학적 문화지역학연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한다. 실제로 선별된 총 64편의 연구주제들은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본 독일에서 사람을 짓기의 변화」(이재호 2008, 독일어문학 41집), 「“거룩하신 성 니콜라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성 니콜라우스 풍습의 유래에 대하여」(그로스 N. Gross, 2004, 독일어문학 24집)와 같이 독일사회의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바이닝어의 유아론과 용수의 공관(空觀)」(인성기 2008, 독일언어문학 40집), 「타자기와 여성해방- 키틀러의 매체이론에 나타난 기술과 여성의 문제」(도기숙 2008, 독일어문학 43집), 「사회귀족주의 - 19세기 독일지식인의 정신사적 지형도」(노영돈 2004, 독일문학 92집)처럼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거나 문화론적이며 지성사적인 주제를 넘나든다. 또한 통시적으로 볼 때 「중세초기 교권과 속권 관계의 건축적 표현 - 독일 중세 건축을 중심으로」(김홍섭 2008, 독일언어문학 40집), 「“경험심리학 잡지”를 통해 본 칼 필립 모리츠와 농어문제」(김수정 2003, 독일문학 86집) 처럼 중세와 근대의 사회문화적 주제에서부터 「통일 이후 동서독 독일어의 통합과정」(최경은 2003, 독일언어문학 21집), 「동독과 서독의 과거

청산을 통해 본 통일독일의 문화사적 정체성(안성찬 2004, 독일어문학 26집)이나 「전통과 혁신의 경계에서-독일 TV광고에 나타난 여성이미지(송희영 2003, 독일문학 86집)처럼 현재 독일사회의 문화변동에 대한 연구까지 뻗어있다. 또한 문화영역별로 보자면 「형식 실험으로서의 매너리즘(안미현 2004, 독일문학 90집), 「바그너의 『로엔그린』에 나타난 사랑의 본질과 비극의 원인(이동용 2008, 독일어문학 41집), 「독일 연극사에 나타난 무대 막의 기능 변천에 관한 시론(최은아 2003, 독일어문학 20집)과 같은 전형적 문학, 예술사적 주제와 「영국 및 프랑스의 시민국가와 독일의 민족국가에 대한 문화비교적 연구(인성기 2003, 독일문학 85집), 「독일역사의 금기. 나치비교 발언(곽병후 2008, 독일어문학 39집), 「68학생운동과 반권위주의 의식혁명(오성균 2004, 독일어문학 24집)처럼 정치사적인 주제가 병존한다. 문화수용과 전이라는 상호문화성 연구도 「문화적 기억과 문학정전 -그리스의 문자문화와 호머의 정전화 과정을 중심으로(고규진 2003, 독일어문학 22집)처럼 서양문명 내재적 발전과정으로서의 문화수용과 「하인리히 하이네 문학의 수용에 관한 연구(2)-1930년부터 1945년까지의 한국에서의 하이네 수용(조창현 2003, 독일어문학 20집), 「새로 발굴된 박용철의 번역 원고의 번역문법적 분석-초벌 번역 원고를 통해 본 박용철의 번역태도(김재혁 2008, 독일문학107집), 또는 역방향으로 「독일인의 한국여행기에 나타난 한국상(처럼 「문화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준)식민지적 문화 접변 과정을 연구하는 경우가 병존한다.²² 그 외에도 「그림민담 속 자연모상과 용의 에로스 원리(최연숙 2003, 독일문학 87집), 「한국과 독일의 문화간 속담비교(김건환, 이동용, 방운규 2004, 독일어문학 26집), 「민요의 길항작용: 민중의 교화와 감정의 해방-한국민요와 독일민요의 비교분석(김재혁 2004, 독일어문학 26집)처럼 민속 비평적 연구, 「재독일 교민의 한국에 대한 기억(이영석 2008, 독일어문학 40집)처럼 이산과 정체성 연구도 있다. 이처럼 연구대상이나 학문이론 차원에서 인문학적 문화지역 연구는 광범위한 영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처럼 다양한 영역과 이론의 병존에도 불구하고 <표 6>의 주제유형이나 그 개별연구물들을 검토해보면 인문학적 문화지역연구에는 몇 가지 수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경험적 현실

자체 보다는 매체와 기호를 통해 재현된, 즉 인지되고 해석되고 재구성된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영화비평, 예술 비평, 매체비평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앞서 II 절에서 폐허를 빌어 언급한 ‘문학적인 것 das Literarische’에 대한 연구로 문학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확장가능한 영역이다. 둘째, 텍스트 중심의 민속학 연구의 비중이 크다. 즉 의사소통과 경험적 고찰을 통해 확인 가능한 대상보다 종교, 신화, 민속, 민요, 속담, 축제처럼 문서와 문화적 기억으로만 남은 과거의 현실과 문화가 선호된다. 셋째, 역사를 다룰 경우 정치경제사보다는 사회문화사와 정신사를 선호한다. 문화수용과 문화전이, 번역과 교류와 같은 비교문화사적인 연구도 꾸준하다. 넷째, 제도사 차원에서 문학과 문화, 학문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통이 새롭게 자리 잡았다. 종합해 보자면, 현재 한국독어독문학이 추구하는 인문학적 문화지역학은 비언어적 기호 체계로서의 현실문화, 예를 들면 현재 독일의 패션문화, 몸의 문화, 공간문화, 여행문화, 취미와 여가문화 등보다는 ‘문학적인 것’, 즉 언어 기호적 체계에서 파생되고 재현된 문화에 주목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사회과학적 문화지역학

지역학의 본격적 대상들, 즉 인문지리와 역사, 정치경제, 사회구성과 계급, 국제관계와 법을 독일어권과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을 사회과학적 문화지역연구라고 할 때, 한국의 독어독문학에서 사회과학적 문화지역연구의 경향은 2003-4년 문화연구의 도약기 이래 제한된 규모이긴 하지만 분명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회과학적 문화연구의 경향과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 유형에 대해서만은 독어독문학의 문화학적 발전기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6개년도 전 기간에 대해 「독일문학», 「독일어문학», 「독일언어문학」 3개 학술지의 해당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전수검사의 의미 보다는 설득력 있는 평가를 위해 자료의 양적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유형은 독어독문학의 지역학적 보완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연구의 장기적 목표설정을 위해서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연구주제들이 부각되었는지 살펴보자.

22 문학작품의 번역과 수용의 연구는 제도로서의 문학 Institution Literatur의 성립과정에 주목하는 경우는 ‘문화제도사’로 분류해, 인문학적 문화지역학으로 파악하였다. 물론 동일한 경우를 문학사회학의 관점에서 문학사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표 7> 2003-4년/ 2005-6년 /2007-8년 3개학술지 사회과학적 문화지역연구의 세부담론유형

순위	주제/담론	2003-4년		2005-6년		2007-8년		합
1	통일, 전환기, 통일 후 통합(영역별)	-	5	5	2	5	2	19
2	유럽, EU, 유럽통합, 유럽정책, 문화지리	3	-	2	2	2	2	11
3	경제, 시장, 기업	-	-	1	-	4	1	6
4	생태, 환경문제	-	3	-	-	-	1	4
4	여성, 청소년, 노인	-	2	1	1	-	-	4
6	극우주의, 인종주의	-	-	-	-	1	1	2
6	지역정책(문화)	-	-	1	-	-	1	2
8	일상(철도)	1	-	-	-	-	-	1
8	국제정치(독-미)	-	-	-	1	-	-	1
년별 합		4	10	10	6	12	8	-
이개년별 합		14		16		20		총50

2003년부터 2008년까지 3개학술지의 사회과학적 문화지역연구논문 50편을 모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우선 통일관련 19편의 연구는 주로 통일로 인한 ‘사회문화변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구동독의 언론, 방송, 여성, 교회, 시민운동 등이 통일 후 어떤 어려움과 변화를 겪는지, 또 구동독의 체제문제, 일반적 통합교육 및 사회적응의 문제, 외교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²³ 방법론적으로는 비판적 사회학이 우세하다. 그에 비해 법제와 행정제도의 구체적 변화, 경제적 구조변화, 정치참여나 의식의 변화, 인구학적 지리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두 번째로 많이 다루어진 주제인 ‘유럽통합’은 개괄적 연구나 문화정책 및 교육정책 연구의 비중이 높다.²⁴ 법률, 행정, 인구이동,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재편, 개별국가별 대응과 입장의 차이 등에 관한 세부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정문수, 정진성의 연구는 유럽의 지리적 공간의식의 변동을 다루는 경우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²⁵ ‘경제’ 관련 연구는 통상적, 전략적 관점이 우세하다. 독일 문화상품 시장, 문화상품의

수출전략을 다루는 논문들이 있다. 독일의 국가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생태’ 관련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관점을 보여준다. 단,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한 법적, 정치적 논의와 결정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사회소수자 관련 연구주제들은 해당 계층에 대한 교육정책과 사회복지 관점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자면 지난 5, 6년간 한국독어독문학계에서 진행된 사회과학적 문화지역학은 아직은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지역학의 본격적 영역들, 즉 인문지리, 역사, 정치경제, 국제관계와 법, 사회문화 중에서는 주로 사회문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사회과학적 문화지역연구란 사실 인문학자인 독문학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무리인 것인가? 독일의 현재사회와 문화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독문학자들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인식목표라면 제한된 가운데에도 그 목표에 부응하는 연구 방법론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사회이해 방법론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유럽 관련 ‘지역학’ 연구를 표방하는 국내 대학의 교육, 연구기관들의 연구현황을 잠시 비교해봄으로서, 이 쉽지 않은 물음에 대한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한국학술정보원의 학술데이터베이스(kiss.kstudy.com)의 정보를 바탕으로, 독어독문학의 사회과학적 문화지역연구가 참조할 만한 몇몇 학술공론장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유럽학회의 「유럽연구」,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EU연구소)의 「국제지역연구」또는 「EU연구」, 그리고 한국프랑스학회의 「한국프랑스학논집」이 본 논문의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대상이었다. 한국유럽학회의 경우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등 다양한 사회과학 영역을 망라하여 유럽지역에 관한 학제간 연구를 지향”한다는 취지를 표방한다. 한국유럽학회는 주로 국내대학 지역학 전공 소속의 정치학자와 외교학자,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와 법학자, 역사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²⁶ 그동안 한국유럽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의 주제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의 정체성 형성과 시민권”(2002), “European Citizenship and the Prospects for Korea-EU Cooperation”(2003), “전환기의 유럽과 유럽통합”(2004), “유럽헌법과 유럽통합의 미래”(2004), “제5차 EU확대와 한국의 협력과제”(2005), “European

23 이 영역의 연구자로는 배기정, 이노은, 도기숙, 박희경 외에 배안석, 김용민 등이 있다.
 24 이 연구영역에서는 ‘문화지역학’을 전공목표로 표방하는 경성대, 건국대, 한국국립해양대의 독일관련 학과 소속인 박이도, 시순옥, 정진성 등이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5 정문수, 정진성(2008), 해항도시 네트워크가 구성하는 “발트해지역”, 독일어문학 42집; 정문수, 정진성(2007), 국경을 넘어 부활하는 한자 도시 네트워크, 독일언어문학 37집.

26 예를 들면 한국유럽학회는 2009년 6월에 제3회 한국유럽학 연합학술회의를 “전환기의 유럽과 한-EU관계”라는 주제로 유럽정치연구회, 한국독일정치학회, 한국동유럽발칸학회, 한국스페인어문학회, 한국프랑스정치학회, 한독사회과학회, 한스자이텔 재단과 공동주최하였다. (참조: www.europe.ac.kr)

Union and the Korean Peninsular”(2005), “유럽의 현재와 국제협력의 과제”(2006), “한국의 FTA 정책과 韓·EU FTA: 평가와 전망”(2006), “변화하는 동북아시아와 프랑스”(2006), “지역주의 확산과 한국무역의 실천적 대응”(2006), “유럽의 사회 갈등과 통합: 동북아에의 합의”(2006), “유럽연합과 다문화주의”(2008), “유럽연합의 제 문체와 세계: 안과 밖의 질서와 정체성”(2008), “금융위기와 유럽의 경제 변화”(2009) 등이 있다. 유럽학회의 학술대회 및 연구논문들은 주로 정치, 경제, 법, 행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특징이다. 즉, 유럽의 정치는 외교, 안보 관점에서, 경제는 통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유럽의 사회문화변동도 종종 국제정치나 통상전략의 전제 요소로 분석한다.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http://segero.hufs.ac.kr>)의 EU 연구소(<http://kimbriss.cafe24.com/ifrm>)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내사정은 물론, 유럽통합에 따른 국가 간 관계와 대외관계에 따른 각 분야별(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활동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또한 국내외의 여러 학술 및 공공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에 노력하며 궁극적으로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표방한다. 운영위원은 어문학 교수들이지만 초빙연구원들은 정치학연구자가 주를 이루며, 경제, 법, 역사, 문학과 언어 연구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EU연구」와 EU연구소, 「국제지역연구」 또는 국제지역연구센터의 학술적 공론장은 크게 볼 때 유럽학회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방한 목표 및 구성원들의 차이로 인해 사회문화연구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

한국프랑스학회와 「한국프랑스학논집」의 공론장은 구성원이나 제도 차원에서 독어독문학의 문화지역연구와 가장 유사한 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 학회가 표방하는 학문적 목표는 “프랑스 문화의 비판적 수용과 연구를 지향”하며, “문학과 어학이라는 전통적인 연구 분야 이외에도 예술과 역사, 정치와 경제 등 총체적인 의미의 “프랑스학” 정립에 필요한 토론과 교류, 검토와 성찰”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프랑스학논집」의 2006년도 게재 논문 30여 편 중 ‘지역학’의 표제 하에 배치된 연구주제들을 살펴보자.

<표 8> 「한국프랑스학논집」(2006) 개별연구주제

	연구주제(제목)	저자
1	1945년 이후 프랑스 무대미술의 형태미학 - 전환무대를 중심으로	권현정
2	2차 세계대전 이후 알제리인의 프랑스로의 이주와 정착	박단
3	문학 텍스트의 영화적 변형에 관한 연구: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와 두 영화를 중심으로	박지희
4	“알제리전쟁”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프랑스의 식민유제 청산과 역사 교육-	이용재
5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비친 조선의 가족문화	이은숙
6	프랑스의 인민전선기의 여가정책과 여가문화 1936-1939	이학수
7	에밀 졸라의 미술비평	조병준
8	프랑스, 미국, 한국의 정치담화 비교분석: 대통령 선거 TV 토론을 중심으로	최윤선
9	유럽 사회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전개과정	허진영
10	유럽헌법 부결과 프랑스 여론	김승민, 은은기
11	일반경제를 향하여 - 르네 지라르를 통한 경제논리 비판 4	김진식
12	Le Corbusier의 초창기 빌라에 나타난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남경숙
13	68운동과 프랑스 여성 해방운동 - 1970년대 전반기 프랑스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	이은미
14	16-17세기 성직자 사회에 나타난 빈곤에 대한 다양한 개념	이성재

2006년의 경우 「한국프랑스학논집」의 문화지역학 비중은 거의 50%에 육박한다. 이 중 본 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인문학적 문화지역학에 속하는 것은 다섯 편(1, 3, 5, 7, 12번)이고 나머지 아홉 편은 사회과학적 문화지역학이다. 이 아홉 편을 학문 이론적으로 구분해보자면, 현대사, 정치적 역사교육, 정치사, 방송학, 유럽이슈정치, 경제이론, 여성운동, 종교사회사 등 비교적 역사와 문화, 정치경제와 사회 분야 전반에 분포되어 있으며, 방법론적으로는 경험적 연구와 담론연구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독어독문학의 사회과학적 지역연구에 비해볼 때, 통상학적 관점은 상대적으로 적고 프랑스 국내정치와 사회, 역사 비평은 더 부각되고 있다. 자료가 적어 확인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이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독어독문학의 사회과학적 문화지역연구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서로 매우 상이한 관점, 즉 비판적 사회학과 실용적이고 전략적 지역이해를 추구하는 통상학적 관점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V. 결론을 대신하여

독문학위기가 지배하던 1990년대 중후반 이래 한국독어독문학의 학술공론장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여러 변화를 보여주었다. 여전히 유동적이고 부문별 편차가 크지만 한국독어독문학의 문화학적 전환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 지난 십오 년 한국독어독문학의 문화학적 경향의 전개과정과 그 세부유형들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마치면서 몇 가지 점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2003년부터 폭증하는 영화비평과 매체분석은 독어독문학이 고립되고 ‘자율적인 예술’로서의 문학을 넘어서 패시의 의미에서 ‘문학적인 것’으로 그 연구대상과 목표를 수정하였고 앞으로도 수정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매체연구의 초기에는 주로 문학작품에서 유래한 영화에 집중하면서 영화 텍스트의 내용 및 형식 비평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매체학적 이론논의가 세분화하고 심화하면서 텍스트와 매체의 논리를 구분하고 매체 간 전이에서 발생하는 내러티브와 인식형식의 변형에 주목하고 있다. 둘째, 역사인류학적 문학연구와 현대문화비평적 문학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문학작품을 텍스트 내재적이고 자기순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작가의 윤리적 탁월함과 미학적 완벽함을 확인하고 옹호하는 식의 ‘정전과의 동일시’를 넘어서 텍스트비평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렇게 생산된 해석과 지식은 미학을 넘어서 역사와 현실문화에 닿아 있다. 셋째, 인문학적 문화지역연구는 다양한 인문학의 방법론을 동원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매체와 공연예술 분야는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축적되는 상황이다. 공연학과 문학학, 매체학과 문학학의 보다 통합적인 학문모델도 가능할 것이다. 반면 민속학 연구는 언제나 특정 역사적 시대의 사회적 맥락으로 통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속학적, 풍속학적 연구가 사회문화사 연구로 이어질 때, 그것 역시 독일사회와 문화에 대한 포괄적 지식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 언어-기호적 매체로 재구성된 재현물의 기호화/의미화 Signifikation 현상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현실문화, 예를 들어 의상, 건축, 공간, 여가행위, 소비행위, 공동체문화 등에 구현되는 비언어적, 물질적 기호화/의미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넷째, 사회과학적 문화지역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영역과 방법론에 치우친 감이 있다. 예를 들자면, 소위 ‘흡수통

일’ 이후 구동독 지역과 구동독 시민들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소외와 어려움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과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다른 통일방식을 생각하기 어렵게 만든 이차대전후 ‘독일문제’에 관한 협정과 구서독의 국제정치적 원칙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외에도 유럽통합을 주도하는 독일의 위상과 외교정책의 변화, 유럽통합으로 인한 독일 국내정치와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관한 구체적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것은 독어독문학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통합학적인 문화지역연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 문화지역연구가 독일어권 문화연구의 포기하기 어려운 기초지식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독일어권 지역의 정치를 외교 전략으로, 경제와 사회 구조를 통상전략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인문학적 인식관심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태도이다. 그것은 오히려 국제정치 및 실용적 통상학의 인식목표에 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아날학파의 자본주의 역사연구가 보여주었듯이, 정치경제의 장기적인 구조변동에 대한 비판적, 역사적 이해는 현재 독일사회의 다양한 문화 변동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관점들을 제공할 것이다. 사회과학적 지역연구는 이런 의미에서 인문학적인 세계이해와 지역이해에 하나의 토대이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독어독문학의 문화연구가 어떤 모델과 유형으로 발전해갈지는 여전히 정확히 예상하기 힘들다. 한편으로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인문학의 방법론적 발전 및 논의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대학제도 및 개별 대학조직 내에서 인문학과 독어독문학에게 주어질 과제 및 위상변화에도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범적이고 보편주의적인 관점에서 외국어문학과와 동일시에 머무는 순수미학적 독문학 연구는 한국 인문학과 대학사회의 학문적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외국어문학의 수용 및 그 학문체도의 성립 자체가 문화충돌과 문화적응, 즉 문화의 차이와 상대성에 대한 근원적 경악체험을 동반한 자기교육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독일과 유럽의 문학정전과 문화적 이상들을 그 구체적 역사적, 사회적 의미화 과정 속에 재배치하고 현실의 일부로 ‘정상화’ 하는 것은 우리의 성숙한 학문적 집단자아에 걸 맞는 태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연구’는 한국독어독문학의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참고문헌

1차 문헌

독일문학 제 1집-109집

독일어문학 제 1집-43집

독일언어문학 제 1집-42집

독일학연구 제 7집, 서울대 독일학연구소, 1998.집, 280-302.

Asiatische Germanistentagung 1997. Literatur im multimedialen Zeitalter -Neue Perspektiven der Germanistik in Asien 2 Bde, 서울 1998.

Germanistentreffen. Tagungsbeiträge. Deutschland-Korea, DAAD Bonn 2006.

2차 문헌

강창호(1998), 독어독문학과에서의 독일학 수용 문제와 그 방향-“독어독문학과 독일학 연구” 세미나를 마치며, 독일학연구 7집, 328-340.

구명철(2007), 한국의 학술연구 - 독어학과 독어교육, 한국의 학술연구 8집, 대한민국 학술원, 133-163.

고영석(2001), 한국 독어독문학 발전사 1946-2000, 독일문학 77집, S.429-457.

고영석(2007), 한국의 학술연구 - 독일소설, 한국의 학술연구 8집, 대한민국 학술원, 164-178.

김상원; 김유리(2009), 국내 및 영미대학의 독일문화관련 전공 교과목 분석, 독일문학 109집, 280-302.

김한란(1998),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업에서 지역사정, 독일학연구 7집, 177-192.

송희영(2009), 변혁기 이후 독어독문학 연구의 확장으로서의 매체사, 뷔히너와 현대문학 32집, 285-305.

손은주(2000), 한국의 독어교육, 독어독문학, 독일학, 독일문학 75집, 448-468.

안삼환(2001), 한국독어독문학의 ‘위기’극복을 위한 모색, 독일문학 79집 446-466.

이기식(2004), 문학연구와 문화연구 - 문화연구가 (독)문학연구의 대안인가? 독일문학 92집, 295-313.

정동규(2008), 주제와 방법론으로 살펴본 국내 독어학 연구, 한국독어독문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55-77.

탁선미(2000), ‘민족문학연구’에서 ‘지역언어에 기반한 문화연구’로, 독일문학 75집 469-483.

한우근(1998), 한국독어독문학 50년 - 회고와 전망, 독일학연구 7집, 102-124.

Böhme, H.; Matussek, P.; Müller, L(2002), Orientierung Kulturwissenschaft, Reinbek bei Hamburg.

Böhme, H.; Sherpe, K.(Hg.)(1996), Literatur und Kulturwissenschaften, Positionen, Theorien, Modelle, Reinbek bei Hamburg.

Choi, Yun-Young(1999), Einige Ansätze zu einer kulturwissenschaftlich orientierten Landeskunde innerhalb der koreanischen Germanistik, in: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4집, 137-155.

Frühwald, Wolfgang; Jauß, Hans Robert; Koselleck, Reinhart; Mittelstraß, Jürgen; Steinwachs, Burkhard (1991), Geisteswissenschaften heute, Frankfurt a.M. 1991.

Matussek, Peter (2004a), Germanistik als Medienwissenschaft - Neue Perspektive einer gar nicht so neuen Programmatik, in: 독일문학 90집, 9-31.

Matussek, Peter (2004b), Leerstellen als Erinnerungsanlässe - Interkulturelle, intermediale und interdisziplinäre Dimensionen eines literaturwissenschaftlichen Theorems, in: 독일문학 90집, 73-95.

Neuner, Gerhard (1996), Berufsorientierte Deutschlehrerbildung - eine Herausforderung für Germanistik auch in Korea, in: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1집, 19-27.

Paech, Joachim (1998) Literatur in den Medien, in: Literatur im multimedialen Zeitalter - Neue Perspektiven der Germanistik in Asien 1. Bd. S.3-21.

Strohschneider, Peter (2006), Über mediävistische Literatur- und Kulturwissenschaft, in :Germanistentreffen. Tagungsbeiträge. Deutschland-Korea, DAAD Bonn 2006, S.71-82.

Tak, Sun-Mi (2002), Quo vadis? - die koreanische Germanistik, in: Neue Beiträge zur Germanistik, Bd.1, hgg.v. Y. Takahashi, München, S.57-66.

Vofkamp, Wilhelm (1998), Literaturwissenschaft und Kulturwissenschaft, in: Asiatische Germanistentagung 1997. Literatur im multimedialen Zeitalter - Neue Perspektiven der Germanistik in Asien 1. Bd. S.74.-93.

Yoshida, Tetsuya(2004), Eine Überlegung zur Grenzüberschreitung als Neuorientierung der Germanistik in Japan, in: 독일문학 90집, 65-72.

<http://kiss.kstudy.com>

<http://www.europe.ac.kr>

<http://segero.hufs.ac.kr>

<http://kimbriss.cafe24.com/ifrm>

Zusammenfassung

Kulturwissenschaften in der koreanischen Germanistik - Ansätze, Perspektiven und Konzepte

TAK Sun-Mi (Hanyang Uni)

Kann man heutzutage von einer kulturwissenschaftlichen Wende der koreanischen Germanistik sprechen, die seit der Mitte der neunziger Jahre des letzten Jahrhunderts im Zuge der vom Erziehungsministeriums eingeleiteten Universitätsreform so oft vorgeschlagen, diskutiert und auch willkommen geheißen worden ist? Wie sieht die germanistische akademische Öffentlichkeit heute aus? Was hat sich aus der beinahe anderthalb Jahrzehnte lang andauernden Reform- und Theoriedebatte ergeben? Welche neuen Konzepte und Modelle haben sich inzwischen durchgesetzt? Die vorliegende Arbeit geht den zurückliegenden Reformbemühungen der koreanischen Germanistik nach, um die daraus entwickelten neuen kulturwissenschaftlichen Tendenzen und Konzepte auszuwerten.

Rekonstruiert und erörtert werden zuerst die zurückliegenden, komplexen Auseinandersetzungen über die erkenntnistheoretischen Ziele und Methoden einer kulturwissenschaftlich orientierten Germanistik in Korea. Anhand der umfassenden Recherche und Analyse von einzelnen kulturwissenschaftlichen Forschungen und Beiträgen, die besonders seit dem Beginn des neuen Millenniums auf den germanistischen Konferenzen und in den Zeitschriften der germanistischen Verbände vermehrt vertreten sind, stelle ich dann vier unterschiedliche Konzepte der Kulturwissenschaft heraus, um ihre jeweils spezifischen Fragestellungen und erkenntnistheoretischen Ziele auszuformulieren; Es handelt sich dabei zum einen um eine noch um die Literatur und die Literaturgeschichte zentriertes Forschungskonzept, in dem der literarische Text wiederholt in seine zeitgeschichtlichen, kulturellen und gesellschaftlichen Signifikationsprozesse zurückübersetzt und im Austausch mit den zirkulierenden anderen sozio-kulturellen Begriffen und Diskursen gelesen und gedeutet wird. Aus einer solchen Literaturkritik entwickelt sich dann entweder eine historische Anthropologie oder eine Kulturkritik, die die Lektüre des Textes zu einer Erkenntnisarbeit über die Gegenwart und die Gesellschaft

verwandelt. Diesen beiden kulturwissenschaftlich motivierten literaturwissenschaftlichen Modellen stehen zum andern zwei Konzepte der Kulturraumforschung gegenüber; man geht hier bewußt über die Grenze der Philologie hinaus und greift je nachdem entweder auf die benachbarten, eher geisteswissenschaftlichen Disziplinen wie Kunstgeschichte, Geistes- und Mentalitätsgeschichte, Medienwissenschaften etc. über, oder man schlägt einen weiten Bogen in das Feld der sozialwissenschaftlichen Area Studies. Ob und wie diese neuen kulturwissenschaftlichen Tendenzen und Konzepte in der koreanischen Germanistik noch in der Zukunft ihre Chance haben werden - das wird dann zum Schluß besprochen und reflektiert.

주제어: 한국독어독문학, 문화학, 지역학, 교육개혁, 인문학

Schlüsselbegriffe: Koreanische Germanistik, Kulturwissenschaft, Landeskunde, Universitätsreform, Geisteswissenschaft

필자 이메일 주소: smtak@hanyang.ac.kr

투고일: 2009. 7. 15. / 심사일: 2009. 8. 10. / 심사완료일: 2009. 9. 6.